

기상청을 믿으셔야 합니다

최우리 한겨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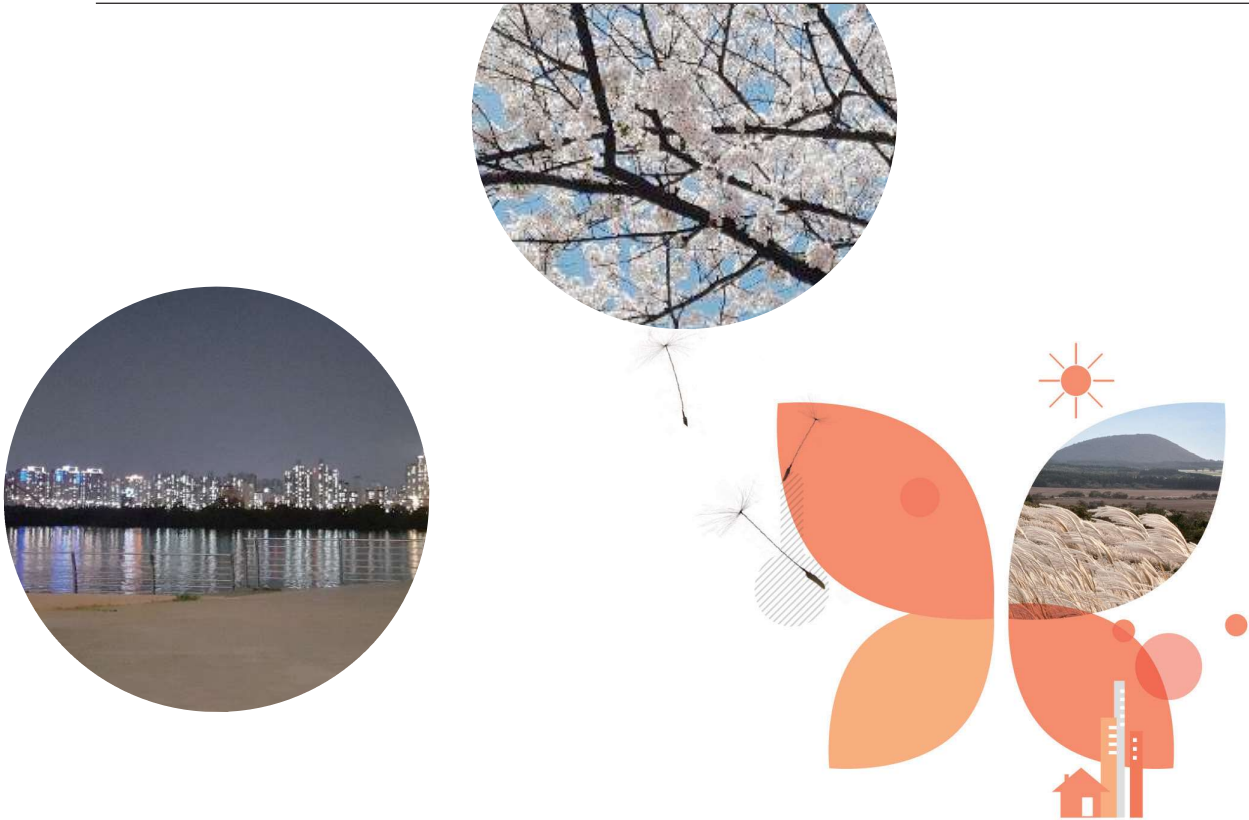


“기상청을 믿니?”

지난 7월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 편집국에서 들은 말입니다. 저는 한겨레기후변화팀 소속으로 4주에 한 번씩 날씨 칼럼을 쓰는 최우리 기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주제는 ‘비’인데, 그날은 그 첫 회가 나간 날이었습니다. 선배는 신문이 배달되는 27일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달지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선배한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7일 비 소식을 전했더니 선배가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기상청 직원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배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쿵하고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씨, 기후 기사를 쓴지 석 달째인 세계 기상청은 절대적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청을 불신하는 시민들은 그 선배처럼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27일은 예보대로 서울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상청을 출입하기 전부터 기상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민이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시간대별 기온과 습도를 일일이 확인하고는 합니다. 저의 경우 한 주의 날씨를 머릿속에 입력한 뒤 이번 주 무슨 요일에 비가 오는지, 평년보다 춥거나 더운지 미리 확인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있던 일과 그날의 날씨를 맞춰보고, 날씨와 어울리지 않으면 일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방송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도 스포츠 뉴스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다음에 방송될 날씨 예보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씨에 집착하는 이유는, 날씨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몇해 전 동료들과 용산가족공원에서 텃밭을 가꿀 때는 강수 시기와 강수량을 알아두면, 밭에 물 주러 가는 일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볕더위가 며칠 동



안 이어지면 밭에서 물이 금세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서 물을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양봉을 할 때도 폭염이면 벌통 안 기온이 너무 뜨거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벌통 입구를 열어두었는데 벌통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방의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비 오는 여름철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모기한테 시달리느라 밤을 설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쾌적한 봄 날씨가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달 결혼하는 친구와 벚꽃을 보러 가지도 못했을 테고 한강변에 앉아 강바람을 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기상청 예보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걱정입니다. 지난 5월 초 이른 더위가 찾아왔을 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5월 날씨 전망 결과는 ‘평년과 같거나 덥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은 내내 서늘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비가 평년보다 더 자주 내렸지요. 이 때문에 양봉농가를 비롯한 많은 농민의 비바람 피해가 특히 심했습니다. 올 한해 기상청이 예보한 날씨와 실제 날씨를 비교한 채점표가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위기는 기상청에는 또 다른 기회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날씨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날씨나 기후변화 기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겨울, 이상하게 추웠던 봄,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린 여름 등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상청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그 선배처럼 아직도 기상청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기를, 드라마 <SKY 캐슬>의 대사처럼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기상청을 응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